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게 적용된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변성원*, 김신향**, 박시현***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A Meta-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s applied to teens in multicultural families.

Soung-Won Byun*, Sin-Hyang Kim**, Si-Hyun Park***

Dept. of Nursing, Ansan University*

Dept. of Nursing,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Dept. of Nursing, Inha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 국내에서 연구된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일반화함과 동시에, 향후 중재 프로그램 설계 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연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석·박사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 중 29편을 선정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프로그램 유형에서 사회적 프로그램, 연구대상은 중학생, 총회기는 8회기 이하, 주회기는 주 3-5회, 집단크기는 21-30명으로 진행했을 때 효과크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은 협력관련변인이 심리관련변인 보다 효과크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합적, 객관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으며, 실천현장에서 다문화 청소년 중재프로그램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다문화, 다문화 가정, 청소년, 메타분석, 프로그램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dentified the effectiveness of the existent interventions, which had been applied to the teens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Totally 29 relevant studies, including dissertations and published articles, published from 2008 to 2014, were systematically searched and analyzed through meta-analytic method. The study results revealed the specific conditions which made the intervention more effective for the teens in multicultural families. Specifically, the program could be most effective when the program had a social adaptation intervention type as well as aimed to middle school students as a target population. Also, the program could be most effective when the program had lower than 8 sessions, run 3-5 times a week, and had from 21 to 30 participants in one intervention group. In addition, current existing programs showed higher effect sizes on outcomes focusing on relationships rather than on those focusing on psychological problems. This study is theoretically meaningful in terms of quantitatively synthesizing the existing intervention programs for the teens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addition, we expect that this study would practically contribute to develop evidence-based programs for those teens in multicultural families.

Key Words :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families, Teens, Meta-analysis, Intervention

Received 5 October 2016, Revised 22 November 2016
Accepted 20 January 2017, Published 28 January 2017
Corresponding Author: Si-Hyun Park
(Dept. of Nursing, Inha University)
Email: kimsin210@nate.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는 인구이동 세계화 현상의 중심부에 들어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14년 4월 1일 기준 초·중·고에 다니는 이주배경 청소년 수는 67,806명(전체의 1.07%)으로 2013년 55,780명(전체의 0.85%)보다 12,026명이 늘었는데 이는 다문화학생 비율이 처음으로 전체 초·중·고학생대비 1%를 넘는 수치이다[1]. 미취학 외국인주민 자녀가 학교에 들어간다고 하면 늦어도 3년 내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경우 환경적으로 이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급식, 의료, 교육, 기초생활보장 등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교에 입학하였다 하더라도 거주지의 불안정, 신분노출의 우려, 실제 나이보다 낮은 학년의 배정 등의 문제로 학교 생활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3]. 이로 인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학습활동이나 교우관계에 취약하다[4]. 특히 청소년기(13세-20세) 특성상 논리적인 사고 구조 틀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고 경험이 부족하여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자각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5]. 그리하여 다문화 가정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이들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최근 들어 다문화 가정 청소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경험적 연구들이 양적으로 증가하였다.

지금까지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교우관계향상프로그램[6], 긍정심리코칭프로그램[7], 사회성신장프로그램[8], 다문화교육 프로그램[9], 독서치료[10], 무용/동작치료[11], 집단미술치료[12,13], 사회적기술훈련[14], 품성개발프로그램[15], 학교생활적응프로그램[16] 등 다양한 개입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개별 프로그램들은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입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 유무만 강조하였고, 연구결과는 대상자가 소수이며, 연구결과는 대상자가 소수이며, 특정프로그램만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는 프로그램의 진행요소에 따라 영향[17]을 받는데

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개입한 진행요소는 결여되어 있다. 즉 다문화 가정 청소년 프로그램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진행요소와 관련된 효과적인 조절변인(프로그램 유형, 총회기, 주회기, 집단크기)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효과는 어떠한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 및 조건은 어떠한지에 대해 개별 연구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메타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다문화 프로그램의 메타분석을 살펴보면, 일반가정의 아동[18]과 유아[19]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효과를 종합분석 한 논문을 2편 발견할 수 있었지만, 다문화 가정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중재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범위를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19세 미만으로 정의하였다. 청소년기의 모습은 집의 구축과정에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온 전 영유아기부터의 기초공사교육 결과라 할 수 있기 때문에[20] 영유아기에서 중·고등학생까지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19세미만)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결과를 메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개별 연구들이 보고하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프로그램 효과를 좀 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일반화할 수 있고, 향후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프로그램 설계하고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개별 연구를 메타분석을 통해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아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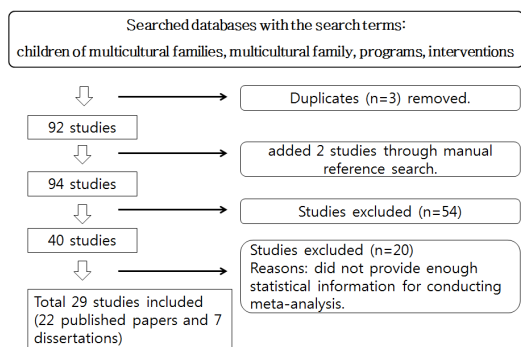
- 첫째, 다문화 가정 청소년 프로그램의 전체 평균효과 크기는?
- 둘째, 다문화 가정 청소년 프로그램의 조절변인(프로그램 유형, 연구대상, 총회기, 주회기, 집단크기)의 평균효과크기는?
- 셋째, 다문화 가정 청소년 프로그램의 종속변인(협력 기능관련변인, 심리관련변인) 평균효과크기는?

2. 연구방법

2.1 연구 자료수집 및 선정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다문화관련 프로그램의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지만 본 연구의 목적과 메타분석 기준에 맞는 논문을 2008년부터 발견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Fig. 1].

첫째, ‘다문화 가정’, ‘다문화 자녀’, ‘청소년(유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프로그램’, ‘치료’ 검색어로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 KISS, 누리미디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KERIS)을 활용하여 분석대상 논문을 검색하였다. 둘째,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중복된 논문은 학술지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실험연구 중에 t검정과 동질성 검사를 실시한 실험·대조집단 사전-사후 실험 설계,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한 연구로 하였다. 넷째, 메타분석에 필요한 효과크기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통계치(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t, p)가 정확히 제시된 논문으로 하였다. 다섯째, 효과크기의 분포를 조사한 후 극단적인 자료¹⁾는 해석에 방해가 되므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여[21] 효과크기 1개를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부록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석·박사 학위논문 7편, 학술지 22편 최종 29편의 연구물이 선정되었다.



[Fig. 1] Flow diagram of study selection

2.2 자료코딩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게 적용한 중재 프

1) 이상치 케이스 진단에서 5이상에 해당하는 효과크기는 제거하였다.

그램의 효과 분석을 위해 Cooper[22]가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코딩 매뉴얼과 코딩 시트지를 개발하였다. 자료코딩은 연구주제, 저자, 출처, 조절변인, 종속변인 등을 코딩 하였다. 평가자간의 신뢰도와 코딩 작업자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연구자 3인이 각자 코딩 후 불합치 한 부분은 최대한 합의를 거쳐 일치하여 신뢰도 계산은 따로 실시하지 않았다.

2.3 분석변인의 분류

본 연구는 조절변인과 종속변인의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이정민과 전경남[18]의 분석기준을 응용하여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분류하였다. 조절변인에 따라 효과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유형, 연구대상, 총회기, 주회기, 집단크기로 분류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인 종속변인은 협력관련변인, 심리관련변인 등으로 분류하였다. 우선 조절변인의 프로그램 유형은 사회적응문제를 주로 다룬 프로그램을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하였으며, 사회성신장, 다문화 교육, 유아교육기관적응, 학교적응, 사회적기술훈련, 진로탐색프로그램, 품성개발, 교우관계 향상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였다. 심리적인 영역을 주로 다룬 프로그램을 심리적인 프로그램은 긍정심리 프리코칭, 자아존중감 증진, 자아효능감 증진, GMIP 심리치료, 집단상담 등을 포함하였다. 예술치료는 예술매체가 갖는 독특한 장점을 상호 보완한 활동으로[23]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미술치료, 음악치료, 무용/동작치료, 독서치료, 원예치료 등을 포함하였다. 연구대상은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분류하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물은 분석기준에 합당한 연구물이 없어 분석할 수 없었다. 연구물에 제시된 기준으로 총회기는 8회기이하, 9-16주, 20회기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주회기는 주1회, 주2회, 주3-5회로 구분하였다. 집단크기는 10명 이하, 11-20명, 21-30명으로 구분 지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인 종속변인은 사회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측정한 협력관련변인[18]은 교우관계, 사회적 기술, 협동성, 책임성, 자기표현능력, 학교생활적응, 또래관계향상 등을 포함하였으며, 심리적인 측면인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불안, 우울, 스트레스, 자아정체감 등을 심리관련변인에 포함하여 분류하였다.

<Table 1> The criteria of categorizing the programs.

Variables		Division
Controlled Variables	Types of program	Social adaptation Program of enhancing social skills, Education programs for multiculturalism, Adjustment programs for young children, School adjustment program, Social skills training, Career exploration program, Character development program, Program of enhancing peer relationship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Positive psychological free coaching program, Program enhancing self-esteem, Program enhancing, GMIP self-efficacy, Psychotherapy, Group counseling programs
		Art therapy dancing/motion therapy, painting therapy, music therapy, Reading therapy, gardening therapy
	Target population	toddler, elementary schoolchild, middle school students
	The number of session	below 8 sessions, 9-16 sessions, more than 20 sessions
	Frequency of intervention	once a week, twice a week, 3-5times a week
	Intervention group size	below 10, 11-20 participants, 21-30 participants
Dependent Variables	Outcomes focusing on relationships	peer relationships, social skills, sociality, cooperativity, accountability, self-expression skills, school adjustment
	Outcomes focusing on psychological problems	Self-esteem, Self-resilience, anxiety, depression, stress, self-identity

2.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출판편향, 효과크기의 산출, 비중복 백분위, 95% 신뢰구간, 동질성검증을 실시하였다. 첫째, 출판편향은 시간적으로 확인하는 깔대기 도표(Funnel plot)와 Rosenthal과 Rosnow [24]가 제시한 출판편향의 민감성 검증 방법인 안전계수(Fail-safe N)를 분석하였다. 둘째, 동일한 주제의 연구들이라 할지라도 서로 일치하지 않은 척도를 가진 경우에는 그 결과들을 종합하기 위해 동일척도로 바꾸어주는 표준화한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25]. 효과크기 해석은 Cohen[26]이 제시한 $\leq .20$ 이면 작은효과크기, $=.50$ 은 중간효과크기, $\geq .80$ 이면 큰효과크기로 해석하였다. 셋째, 비중복백분위를 사용한 해석 방법은 효과크기를 표준화점수 Z 와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하여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Z 점수에 50을 더하여 이를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이다[21]. 넷째, 95% 신뢰구간은 각 연구에서 추정된 효과크기의 통계적 유의성으로 효과크기의 정밀성을 나타내며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한다[27]. 다섯째, 동질성검증은 개별연구 결과들이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는 Q통계치[27]와 I^2 값을 산출하였다. Q 검증에서 영가설은 ‘연구결과들이 동질적이다’라는 것이며, p 값이 낮으면 연구들 간에 통계적인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이질적이라는 것은 분석대상 연구물의 효과크기 차이가 특성변인에 의해 유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28]. I^2 값이 50% 이상이면 상당한 정도의 이질성이 있다고 판단한다[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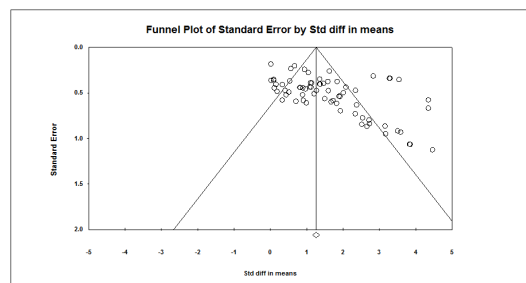
2.5 자료분석도구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메타분석의 소프트웨어인 CMA2를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출판편향

본 연구의 출판편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X축을 효과크기(Fisher's z)로, Y축을 표준오차로 한 Funnel plot를 통해 효과크기의 분포를 [Fig. 2]에 제시하였다. 좌우 비대칭을 나타내 출판편향 민감도를 살피는 안정계수를 분석한 결과 2942로 효과크기가 무효 되기 위해서는 2942개가 추가 되어야 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다문화 청소년의 프로그램의 효과가 인공물(artifacts)의 편향에 의해 도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측된 효과에 대해서 그만큼 신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30].



[Fig. 2] Funnel Plot

3.2 다문화 프로그램의 전체평균효과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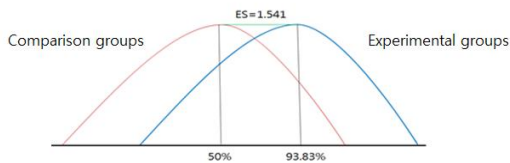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선정한 29편의 연구물에서 나온 71개의 효과크기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 프로그램의 전체평균 효과크기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동질성검증 결과 $Q=409.176(p<.001)$ 로 영가설이 기각되었으며, I^2 는 82.89%로 개별 연구물들 간 효과크기가 상당히 이질적인 분포로 나타나 무선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전체효과크기는 1.541로 Cohen의 해석기준에 의하면 $\geq .80$ 이므로 큰 효과크기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1.290-1.79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Overall effect size

Overall effect size	K	ES	U^3	95% CI	Q_b	I^2	p
	71	1.541	93.83	1.290 1.792	409.176***	82.89	0.000

***p<0.001

비중복백분위(U^3)는 93.83%로 다문화 프로그램을 개입한 다문화 가정 청소년 실험집단이 43.83%만큼 대조집단에 비해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Fig. 3].



[Fig. 3] Percentiles of non-overlap

<Table 3> Effect sizes by the moderators.

	Classification	K	ES	U^3	95% CI	I^2	Q	P
Types of programs	Social adaptation program	34	1.749	95.97	1.352 2.146	87.477	40.636***	0.000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12	1.375	91.53	0.917 1.832	61.445		
	Art therapy	25	1.233	89.12	0.894 1.572	68.621		
Target population	Middle school students	19	1.907	97.17	1.334 2.480	88.592	37.330***	0.000
	Toddler	10	1.635	94.90	0.887 2.384	79.756		
	Elementary schoolchild	42	1.349	91.13	1.077 1.621	75.826		
The number of session	below 8 sessions	7	2.165	98.48	1.716 2.457	81.739	37.462***	0.000
	more than 20 sessions	20	1.498	93.27	0.704 1.190	48.799		
	9-16 sessions	44	1.458	92.75	0.809 1.275	71.275		
Frequency of intervention	once a week	38	1.470	92.93	1.120 1.821	87.608	4.180***	0.000
	twice a week	26	1.454	92.92	1.064 1.843	71.695		
	3-5times a week	7	2.339	99.03	1.501 3.177	66.854		
Intervention group size	below 10	38	1.557	94.03	1.236 1.879	63.996	0.799***	0.000
	11-20 participants	24	1.331	90.83	0.980 1.682	78.016		
	21-30 participants	9	1.840	96.71	0.986 2.695	96.020		

***p<0.001

3.3 조절변인에 따른 효과 크기

조절변인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변인들이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른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사회적응 프로그램(ES=1.74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심리적응 프로그램(ES=1.375), 예술치료(ES=1.233)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유형 변인 모두 다 Cohen의 해석기준의 $\geq .80$ 으로 큰효과크기에 해당 되었으며 동질성검증 결과 $Q=40.636(p<.001)$ 로 나타나 영가설은 기각되어 효과크기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중복백분위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95.97%로 45.97%, 심리적응 프로그램은 91.53%로 41.53%, 예술치료는 89.12%로 39.12%의 개입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에 따른 효과크기 분석 결과, 중학생(ES=1.907), 유아(ES=1.635), 초등학생(ES=1.349)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모두 다 Cohen의 해석기준에 의하여 살펴보았을 때 $\geq .80$ 으로 큰효과크기에 해당되며, 동질성검증결과 $Q=37.330(p<.001)$ 로 나타나 효과크기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중복백분위는 유아는 94.90%, 중학생은 97.17%, 초등학생은 91.13%로 각각 44.90%, 47.17%, 41.13%의 개입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총회기에 따른 효과크기 분석결과, 8회기이하(ES=2.165), 20회기이상(ES=1.498), 9-16회기(ES=1.458)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인이 큰효과크기에 해당되었다. 동질성검

증결과 $Q=37.462(p<.001)$ 로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비중복백분위는 8회기이하는 98.48%로 48.48%, 17회기이상은 93.27%로 43.27%, 9-16회기는 92.75%로 42.75%의 개입효과가 있었다.

주회기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주3회-5회($ES=2.339$)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이 주1회($ES=1.470$), 주2회($ES=1.454$) 순으로 나타났다. 주회기 모든 변인이 $\geq .80$ 으로 큰효과크기에 해당되며, 동질성검증 결과 $Q=4.180(p<.001)$ 으로 효과크기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중복백분위는 주1회는 92.93%, 주2회는 92.92%, 주3회-5회가 99.03%로 각각 42.93%, 42.92%, 49.03%의 개입효과가 있었다.

집단크기에 따른 효과크기의 분석결과, 21-30명($ES=1.840$), 10명이하(1.557), 11-20명($ES=1.331$) 순으로 큰효과크기에 해당되었다. 동질성검증 결과, $Q=0.799(p<.001)$ 로 영가설이 기각되어 효과크기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보였다. 비중복백분위는 10명 이하는 94.03%, 11-20명은 90.83%, 21-30명은 96.71%로 각각 44.03%, 40.83%, 46.71% 만큼씩 개입효과가 있었다.

3.4 종속변인의 효과크기

종속변인별 개별 평균효과크기의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95% 신뢰구간에서 두변인 모두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로 나타났으며 동질성검증 결과 $Q=19.41(<.001)$ 으로 나타나 영가설이 기각되어 종속변인에 따른 효과크기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효과크기는 협력관련변인($ES=1.613$), 심리관련변인($ES=1.407$) 순으로 나타나 두변인 모두 다 Cohen의 해석기준에 의하면 큰효과크기를 가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비중복백분위는 협력관련변인은 94.47%로 44.47%, 심리관련변인은 92.02%로 42.02%의 개입효과가 있었다.

<Table 4> Effect sizes by the 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K	ES	U^3	95% CI	I^2	Q	p
Outcomes focusing on relationships	46	1.613	94.47	1.291 1.934	82.580	19.414	0.000
Outcomes focusing on psychological problems	25	1.407	92.02	1.017 1.797	81.740		

*** $p<0.001$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게 적용된 중재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를 2008년에서 2014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석·박사학위 논문 및 학술지논문 29편을 메타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 청소년 프로그램의 전체효과크기는 1.541으로 Cohen[26]의 기준에 의해 큰효과크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메타분석의 평균효과크기 0.96 [19], 일반가정의 아동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메타분석의 평균효과크기 1.406 [18] 보다 큰효과크기에 해당되었다. 이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 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조절변인에 따른 효과크기는 우선, 프로그램 유형별은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심리적응 프로그램, 예술치료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사회적응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사료된다. 그리하여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사회적응 문제, 즉 기관적응, 학습활동과 교우관계 등 교육환경 안에서의 적응 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기관 생활적응, 사회적 적응기술훈련 등의 사회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시사점이다.

연구대상의 효과크기는 중학생이 가장 높은 효과크기로 나타났으며, 유아, 초등학생 순으로 큰효과크기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은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에서 점차 벗어나 정서적 안정감과 사회적 행동을 배우게 되는 중요한 시기[31]로 인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유아, 초등학생 발달단계보다 더 절실하여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 초등학생 역시 큰 효과크기로 나타났으므로 이들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총회기, 주회기 효과크기는 총회기가 8회기 이하, 주회기는 주 3-5회로 진행 할 때가 가장 높은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기프로그램으로 주중에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

년들은 지속력이나 집중력이 약한 특징에 의한 결과로 사료된다. 이러한 다문화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한다면 주중에 집중적인 만남으로 단기 개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집단크기의 효과크기는 21명-30명이 가장 효과크기가 높았다. 이는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다문화 가정의 또래관계 속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집단크기에서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그리하여 다문화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 할 시 총회기 8회기 이하, 주3-5회, 집단크기 21-30명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종속변인의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협력관련변인과 심리관련변인 둘 다 큰효과크기로 나타났으며 효과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변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게 적용한 중재 프로그램을 메타분석을 통해 효과성을 파악한 국내 첫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으며, 근거기반에 의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둘째, 실천현장에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 중재 프로그램 설계를 한다면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중재 프로그램이 단계개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단계적 프로그램 개발과 실무현장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Ministry of Education, "The number of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4.
 [2] DOI: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9217021g&intype=1>
 [3] H. W. Lee, H. Y. Lee., "Factors affecting school adjustment of the migrant workers' children in Korea", *Democratic Society and policy Studies*, Vol. 22, pp. 132-161, 2012.
 [4] S. B. Choi, H. C. Lee, G. S. Kim, "Influence adaptation to the satisfaction of the life of the school life of children youth of multicultural families." *South*

Korea Children's Youth Panel Survey Scientific Conference, Vol. 1, pp. 1-19, 2011.
 [5] S. G. Song, "A Study on the Last 10 Years' Research Trend of Art Therapies for Youth" *Arts Psychotherapy Research*, Vol. 10, No. 3, pp. 155-179, 2014.
 [6] E. H. Lee, G. O. Lee, "The Effectiveness of Peer Relation Improvement Program on Peer Relation i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2, pp. 605-612, 2013.
 [7] G. S. Cho,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y coaching program on self-efficacy, attitude of class, comradeship for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wangwoon University, Seoul*, 2012.
 [8] H. H. Son, "The effect which the sociability extension program reaches in social technique to the multicultural family infant",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aya University, Gimhae*, 2010.
 [9] Y. J. Jung, S. S. Pu, E. S. Hong. "The Impact of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on Self-Concepts, Adjustments and Social Relationships of You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Physical Education*, Vol. 13, No. 1, pp. 7-19, 2011.
 [10] M. N. Lee, Y. S. Sun, "The Effect of Bibliotherapy Program for Shy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Research of Bibliotherapy*, Vol. 4, No. 1, pp. 115-129, 2011.
 [11] I. S. Kim, G. H. Lee, "An Effect of Dance and Movement Therapy(DMT) on Psychosocia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Children" *Arts Psychotherapy Research*, Vol. 7, No. 4, pp. 57-73, 2011.
 [12] S. H. Park, "Effects of the Reduction of Bicultural Stress and the Improvement of Peer Relation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Korean Journal of Arts Therapy*, Vol. 1, pp. 25-51, 2010.
 [13] S. M. Ha, M. O. Go, "The Effects of a Group Art Therapy Program on Developing Communication Self-Expression and Art Self-Expression Abilities Assessed for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 Asian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Vol. 9, No. 2, pp. 21-39, 2011.
- [14] S. H. Yeum, H. K. Shin, S. S. Oh, "The Effects of a Social Skills Group-Training Program on Social Skills, Negative Automatic Thoughts, and Stress in International Couples' Childre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9, No. 3, pp. 853-873, 2010.
- [15] J. U. Kim, C. J. Park, "The Effect of A Character Development Program on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Vol 27, pp. 41-59, 2011.
- [16] S. U. Han, "The Development and Effect of School Adjustment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Ph.D. dissertation, Chonbuk University, Jeonju, 2012.
- [17] Durlak, J. A & Dupre, E. P., "Implementation Matters: a review of research on the influence of implementation on program outcomes and the factors affecting implementa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41, pp. 327-350, 2008.
- [18] J. M. Lee, G. N. Jeon,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on Korean children's multicultural competences: A meta-analytic synthesis",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Vol. 29, No.2, pp. 279-306, 2013.
- [19] H. W. Lee, "A Meta-Analysis on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for Children",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Vol. 19, No. 1, pp. 43-63, 2014.
- [20] G. R. Kim, "A Study on the Character Education Contents and Approach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 2, pp. 61-65, 2011.
- [21] S. S. Oh, "Meta-analysis : theory and practice, Seoul: Konkuk University Press", 2007.
- [22] Cooper, H., "Research synthesis and meta-analysis: A step by step approach(4th ed.), NY: Sage Publications Inc", 2010.
- [23] Malchiodi C. A., "Handbook of art therapy. NY: The Guilford Press", 2005.
- [24] Rosenthal, R. Rosnow, R. L., "Essentials of behavioral research: Methods and data analysis (2nd ed.), NY: McGraw-Hill.", 1991.
- [25] S. D. Hwang, "Meta-analysis, Seoul: HAKJISA", 2014.
- [26] Cohen,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NY: Academic Press", 1998.
- [27] Borenstein, M, Hedges, L. V., Higgins, J. P. T, & Rothstein, H. R., "Introduction to meta-anaylsis. West Sussex. UK: Wiley.", 2009.
- [28] Cocoran, J., Dattalo, P., Crowley, M, Brown, E., Grindle, L., "A Systemic review of psychosocial intervention for suicidal adolescen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 33, No. 9, pp. 2112-2118, 2011.
- [29] Higgins, J., & Green, S., "Cochrane Handbook for Systematic Reviews of Intervention(5.1. vers.). The Cochrane Collaboration. Retrieved from www. Cochrane-handbook. org. meta-analysis version 2. Englewood, NJ: Biostat", 2011.
- [30] Borenstein, M, Hedges, L. V., Higgins, J. P., & Rothastein, H. R., "Comprehensive meta-analysis version 2. Englewood, NJ: Biostat.", 2005.
- [31] S. S. Shin, "Effect of School Adjustment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Ego-identity, Peer Relationship and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ir School Liv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10, No. 4, pp. 459-481, 2012.

변 성 원(Byun, Soung Won)



- 2002년 2월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5년 8월 :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상담학석사)
- 2012년 8월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간호, 다문화간호 · 상담, 영화제작교육
- E-Mail : bswroh9606@ansan.ac.kr

김 신 향(Kim, Sin Hyang)



- 2011년 8월 : 순천향대학교 심리치료학과(문학석사)
- 2014년 8월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15년 8월 ~ 현재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박사과정)
- 관심분야 : 노인정신보건, 다문화상담

· E-Mail : kimsin210@nate.com

박 시 현(Park, Si Hyun)



- 2011년 8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5년 3월 : University of Washington (간호학박사)
- 2016년 2월 ~ 현재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가죽간호, 회복력, 폭력및학대이슈, 질적연구방법론

· E-Mail : spark@inha.ac.kr